

■ 노인문화 새 풍속도

미팅하며 외로움 푼다

자식보다 친구들 더 좋아해, 재혼도 적극 고려

인생의 중반기를 넘기고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려는 5, 60대 독신남녀들이 이제는 내인생을 당당히 찾겠다는 신사고로 이색 미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재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5, 60대 여성들도 "대화가 통하고 내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라면 재혼을 하고 싶다"는 재혼의사를 과감히 표명할 만큼 자연스런 미팅을 통한 대화친구는 물론 배우자찾기를 꺼려하지 않는 것도 요즘 중·장년층 독신들에게서 엿보이는 신사고의 일면이다.

여성들의 경우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나이인 5, 60대가 많고 남성들의 경우 50대에서 70대 노년층.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흘러간 옛노래를 함께 부르다 보면 열 효과보다 더 위안이 된다는 게 중·장년층 이색미팅에 나오는 이들의 공통된 얘기다.

노래방·야외놀이 등 평범한 만남으로 웃음 찾아

3년전부터 친구의 권유로 비슷한 처지의 홀로된 남녀의 대화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연희동의 김연숙 씨(58)는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난 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방저방을 오가며 우두커니 있다 보니 웃을 일조차 없어 너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일주에 한번이나마 웃을 일이 생긴 것이 여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른 둘에 홀로된 김씨는 당시 4남매를 키우느라 재혼은 커녕 남자를 만나본다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이제 말이 통하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라면 재혼도 하고 싶다는 것.

김 씨가 나가는 이 모임은 비슷한 혼자된 이들 20여명이 1주에 1번 만나 지난 일주일간의 얘기도 하고 노래방에 들르거나 한 달에 한번쯤은 야외놀이도 가는 평범한 만남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평소엔 느낄 수 없는 웃음을 되찾고 그냥 웃고 떠드는 것이 좋아서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

김 씨에 따르면 공식화된 모임은 아니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녀만을 위해 바쳐온 5, 60대 독신들만의 대화모임, 독신이 된 동창모임 등이 소규모 인원으로 조직돼 평시에도 연락,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모임들이 있다고 전한다.

단순한 대화만이 아니라 재혼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 중·장년층 독신남녀의 대화모임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는 85년 노인교실로 등록된 <원앙생활연구원>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마련하고 있는 <독신남녀 대화광장> 프로그램. 회원수가 무려 2천여명에 달하고 매주 4~



▲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일상의 쓸쓸함을 달래고 대화친구도 사귄 수 있는 독신 남녀들의 모임이 늘고 있다.

50명이 참석하는 이 이색모임은 45세 이상은 준회원으로, 50세 이상은 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 77쌍의 재혼쌍도 탄생시킨 이 모임에는 그저 친구나 사귀겠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이들부터 말이 통하는 짝을 만나면 재혼도 하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지닌 층 등 참여동기는 다양하다.

노래 한 곡만 불러도 회춘되는 기분

8년전부터 이 모임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최진훈 씨(65, 한의사)는 "여기에 나오는 이들 대부분은 효성이 지극한 자식과 며느리, 재물등이 손자 손녀를 둔 다복한 집안환경을 지녔으나 자식들만으로는 위안받을 수 없는 고독감, 삶의 허무감을 메울 수 있는 친구나 배우자를 만나 서로 위하며 삶을 다시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홀로된 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며 격식을 차리지 않고도 자유롭게 모여 노래도 하고 어울려 춤도 추다보면 축척지게 마련인 일상의 삶에 활력을 얻고 돌아가게 된다고.

이 모임은 재혼 가능성도 많은 상처한 남자들보다 '오직 자녀만을 위해' 2~30년간 홀로있어온 독신 여성층이 3:1의 비율로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우연히 방송을 듣고 1년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천순녀 씨(62)는 연령층이 많은 노인학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도 적극 표명한다. 여성들의 경우 예전에 느낄 수 없는 공허감에 손녀도 데려다 키워보기도 하지만 허물없이 얘기할 친구나 말벗이 생기고 부터는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모임으로 발길이 끌린다는 것.

대령으로 제대한 뒤 3년 전 상처했다는 이규범 씨(61, 독신모임 부회장)는 "아무래도 처지가 비

슷한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 이곳에 나올 때는 마음도 설레고 은근히 신경도 써진다"며 남녀를 떠나 일류 멋쟁이를 뺄치는 옷차림에 그저 박수나 치고 노래 한 곡만 불러도 회춘되는 기분이라고 고백한다.

이 씨의 말대로 이 모임 프로그램이 독특하거나 유별난 것은 하나도 없다. 외로운 이들이 그냥 함께 모였다는 사실외에는 몇 가지 게임과 악단의 반주에 맞춘 합창, 특별 장기자랑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뿐. 매주 토요일에 나와 '왕별' 팀, '수선화', '물망초' 등으로 나뉘어 10여명의 남녀가 한팀이 되는 윗탁자에 둘러앉아 한바탕 떠들고 가는 게 묘하게 생의 활기와 위안이 된다는 것.

가부장적 권위 세우면 결혼 이르기 힘들어

이 와중에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면 평소에도 서로 연락해 데이트를 즐기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 그래서 재혼에 골인한 케이스가 매년 늘어나 총 77쌍이 됐다. 2년전 이 모임에서 만나 성공적으로 재혼살림을 이끌고 있는 이장훈 씨(75)와 박경수 씨(60) 부부는 "옛날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가 맺어준대로 살던 삶과 달리 두 사람만의 생활에 서로 더 위하고 아끼게 된다"며 둘만이 외출하고 여행을 자주하는 게가 쏟아지는 황혼기로 양가 자녀들의 축복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것. 아내 박 씨는 남편되는 이 씨가 초일류 멋쟁이에 매너도 좋아 성격도 잘맞는다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데 싸움일조차 없다"고 한다.

재혼에 이르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다. 우선 남자는 여자보다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더 나야 하고 과거처럼 가부장적 권위만을 내세워서는 곤란하다. 옛날에는 할 수 없이 죽어 지냈던 여성들이 재혼해서까지 난자만 떠받

치는 생활에 윤기를 더하기 위해 한달에 1번씩 만나는 모임도 가져 부부싸움 경험도 듣고 어떻게 재혼생활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도 하다.

재산문제 미리 합의 사후 분쟁소지 없애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은영 원장(58)은 "이 모임의 목적이 노후생활에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복에 있기에 꼭 재혼만이 목표가 아니라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 말동무 친구와 어울리며 자신의 삶을 추스려보는데 있습니다. 한데 어울림으로써 삶의 공허감이 한결 덜어지게 되므로 많은 독신남녀가 이런 모임을 원한다"고 한다.

정원장의 말처럼 생의 말미에

찾아드는 외로움을 같이 있으면서 해서 고독감을 덜어보려는 추세는 과거에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현상. 자녀만을 위해 바쳐온 한평생을 이제 자기를 위해 쓰겠다는 의식이 홀로 있는 이들이 이런 저런 모임에 참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만남은 수적으로 아주 적은 게 사실이며 가장 규모가 큰 <독신남녀 대화모임>도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모임에 나오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이런 부류의 모임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활발해지고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모임에 나가 대화친구를 사귀는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가슴마저 설렌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박혜숙 기자)

드는 생활은 기피하고 있기에 서로 위해주는 성격이 아니고는 성사가 힘들다. 또 재혼시 남녀 모두 고려되는 조건은 양가 자녀들의 이해라는 가장환경.

따라서 재혼에 성공한 경우는 모두 자녀들의 동의 아래 한쪽의 미혼자녀와 함께 살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둘만의 살림집을 장만해 사는 경우, 각자의 집을 번갈아 오가며 사는 경우 등 다양하다.

재혼팀, "남은 시간 아깝다" 꿀맛 신혼 꾸러

이들은 또 사후 재산문제로 생길 분쟁의 소지마저 아예 없애고 어느쪽이든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각자 재산은 각자 자녀에게 나눠주기로 합의하고 재혼한다는 것. <원앙생활연구원>의 독신남녀 모임에서는 특별히 재